

### 에베소서 1 장 15-23 바울의 기도

15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서, 16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9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20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21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22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번 나오는데 그 첫번째가 이번 성경공부의 내용인 1 장 15 절에서 23 절에 나옵니다. 두번째 기도문이 3 장 14 절에서 21 절에 있습니다.
- 이 기도문은 헬라어 원문에는 하나의 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면서 문맥에 맞게, 이해되기 쉽도록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 15-16 절의 내용에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8 절에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린도전서 13 장 13 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세가지가 같이 언급된 것을 기억하면, 이 세가지가 크리스찬의 삶에 중요한 요소들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 절에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말은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 17 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란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격차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이 강조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중보자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이 강조된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지혜와 계시의 영' 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세가지를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입니다.

-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 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변화된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인데 이것은 가까운 미래뿐만 아닌, 궁극적인 완벽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 은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합당한 해석은, 크리스찬들이 받을 상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상속 즉 크리스찬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맞아들이실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시간이 될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 '하나님의 능력' 을 이야기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보통 '능력' 이 아니라는 것을 '강한 힘'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강조를 하고 있고, 그 능력을 통하여 이루신 일들을 20-22 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물리적인 힘이라기 보다는 생명을 살리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힘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의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20-21 절을 통해 알 수 있고,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도 중요하다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1 절에서 '모든 정권, 권세, 능력, 주권, 이름'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사람이나 권세에 관한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합니다. 에베소서 6 장에 가서 영적인 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서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교회에 대한 언급이 특히 많은 편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언급되는 교회는 지역교회와 같은 교인들의 모임에 대한 의미보다는 더 광범위한, 우주적인 교회를 묘사합니다.
-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의미는 관계성으로 접근하면 맞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라는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안에 있다는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크리스찬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23 절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 이라는 표현은 완전함이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에 충만하고, 그 충만함으로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